

경북 울진 · 울릉 · 영덕군 인구감소 배경과 시사점

유영철*

2022. 4.

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six vertical bars of varying heights and colors (dark blue, light blue, white, light blue, dark blue, dark blue) surrounding a central white box with a black border containing the text '목 차' (Table of Contents).

목 차

〈 요약 〉

I. 검토 배경	1
II.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 인구감소 추이	3
III.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 인구감소 배경	7
IV. 시사점	15

〈 참고자료 및 문헌 〉

<요 약>

(검토 배경)

-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 인구는 **저출산**과 타 지역으로 **순유출**이 발생하면서 **지속적으로 감소**하는 상황이며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 10월 울진·울릉·영덕군을 포함한 89개 기초자치단체를 **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**
 - **인구감소**는 일반적으로 소비부진,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유인을 낮추고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져 **경제성장을 제약**하는 주요인으로 작용

⇒ 이에 본고에서는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의 인구감소 원인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

(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 인구감소 추이)

-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의 **인구**는 1992년 14.7만명에서 2021년 9.2만명으로 **꾸준히 감소**
 - 인구변동을 자연증감(출생, 사망)과 사회증감(전입, 전출)로 나누어보면 저출산에 따른 자연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, 2017년 이후 타 지역으로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체로 **사회증감**이 인구감소에 **더 크게 작용**
 - 사회증감을 연령별로 보면 50대를 제외한 **대부분 연령층**에서 **순유출**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**20~30대**가 **대부분**을 차지
 -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이유로는 **직업**(취업, 사업, 직장 이전 등)이 40.4%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 가족, 주택 등의 순

(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 인구감소 배경)

① 산업구조 : 공공부문 편중,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미흡

-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의 **산업구조**는 전기·가스, 행정 등 정부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는 **공공부문**에 **편중**되어 있음
 - 2018년 기준 지역내총생산에서 **제조업**의 **비중**은 **2.5%**에 **불과**한 반면 전기·가스는 25.0%, 행정은 15.5%를 차지
 - 특히 울진군의 경우 원자력 발전이 포함되는 전기·가스 비중이 36.8%로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구조
-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의 **일자리수**(종사자수 기준) 역시 제조업 등 **민간부문의 비중이 낮고** 전기·가스, 행정 등 **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 특징**

② 고용의 질 : 낮은 고용안정성, 저임금·단순노무 중심

-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은 고용안정성 등 **고용의 질적 수준이 낮아** 지역 경기상황에 따라 거주민의 사회이동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
 - 임시·일용직,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고 단순노무 중심의 일자리가 많으며 급여수준도 낮은 편

③ 정주여건 : 낙후된 생활환경

-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은 주거·교통·교육·문화 등의 **정주여건이 좋지 않아**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 요인으로 작용
 -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고속도로IC 및 고속철도역까지의 거리가 멀고 교육 및 문화시설까지의 접근성도 취약

(시사점)

□ (종합평가)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제조업 기반이 발달하지 못해 **양질의 일자리가 부족**하고 주거·교통 등을 포함한 **생활여건도 열악**하기 때문

○ 또한 **재정자립도가 낮아** 지방재정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,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**경기 완충 정책을 제약**하는 요인으로 작용

⇒ 지역의 경제상황에 맞추어 단기적으로는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구의 자연증가를 견인할 수 있는 과감하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

□ (대응방안)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전략은 ①지역 특색을 살린 산업기반 확충 ②정주여건 개선 및 사회기반시설 정비이며 아래의 세부과제를 추진해나갈 필요

① 지역 특색을 살린 산업기반 확충

○ 원자력발전, 풍력발전, 그린수소, 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 등 **新에너지산업**에 대한 투자와 지원 강화

○ 풍부한 청정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 및 힐링관광 인프라 구축

○ 자동화, 선진화를 통한 어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

○ 귀농·어·촌 지원 및 장려

② 지역 특색을 살린 산업기반 확충

○ 도로, 철도, 항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접근성을 제고

○ 교육, 문화, 보건, 복지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구축

○ 도시재생 및 뉴딜사업 적극 추진

I. 검토 배경

-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 인구는 저출산에 따른 자연감소가 계속되는 데다 2017년 이후 취업 등을 위한 전출이 많아지면서 감소폭이 다소 커진 상황
-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경북 울진군, 울릉군 및 영덕군이 포함
 - 3개 군지역 인구는 2010년 대비 11.9% 감소(10년 10.5만명 → 21년 9.2만명) 하였는데 이는 여타 인구감소지역에 비해서도 감소세가 뚜렷한 편

인구감소지역 인구 및 증감율

분류	총 인구수(명)		증감율
	2010년	2021년	
경상북도 전체(23개)	2,689,920	2,626,609	-2.4%
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(16개)	960,167	880,118	-8.3%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울진·울릉·영덕군(3개) 	104,508	92,039	-11.9%
여타 인구감소지역(13개)	855,659	788,079	-7.9%
경상북도 내 미지정 지역(7개)	1,729,753	1,746,491	+1.0%
전국 인구감소지역(89개)	5,493,415	4,898,121	-10.8%

자료: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

- **인구감소**는 일반적으로 소비부진,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유인을 낮추고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져 **경제성장을 제약***하는 주요 인으로 작용

*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의 최근 3년(2016년~2018년중) 연평균 경제성장률(GRDP)은 -2.6%로 역성장하는 상황

⇒ 이에 본 고에서는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의 인구감소 원인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

<참고 1>

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정부의 대응 전략

□ (지정) 2021.10월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*를 기준으로 전국 89개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

* ①연평균 인구증감률, ②인구밀도, ③청년 순이동률, ④주간인구, ⑤고령화 비율, ⑥유소년 비율, ⑦조출생률, ⑧재정자립도 8개 지표를 기반으로 산정

○ 지방 시·군을 중심으로 지정하였으나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및 광역시 내 일부 시·군·구도 포함되었으며 향후 5년 주기로 조정할 예정

□ (지원방안)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10여년 동안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할 계획

○ 각 지자체가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단 평가, 기금심의위원회 협의·자문 등을 거쳐 배분금액을 확정

광역시·도별 인구감소지역 지정¹⁾ 현황

광역	전체	지정	비율(%)	광역	전체	지정	비율(%)
서울	25	-	-	강원	18	12	66.7
부산	16	3	18.8	충북	11	6	54.5
대구	8	2	25.0	충남	15	9	60.0
인천	10	2	20.0	전북	14	10	71.4
광주	5	-	-	전남	22	16	72.7
대전	5	-	-	경북	23	16	69.6
울산	5	-	-	경남	18	11	61.1
세종	1	-	-	제주	2	-	-
경기	31	2	6.5	계	229	89	38.9

주 : 1) 2021년 10월 기준

자료 : 행정안전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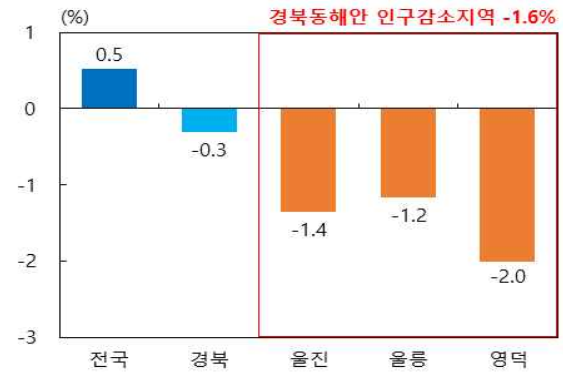
Ⅱ.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 인구감소 추이

-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의 인구는 시군구별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2년 14.7만명에서 2021년 9.2만명으로 꾸준히 감소
 - 지역별로는 영덕군이 30년 동안 연평균 2.0% 감소하여 경북의 감소폭(-0.3%)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며 울진군, 울릉군의 감소세도 뚜렷



자료 :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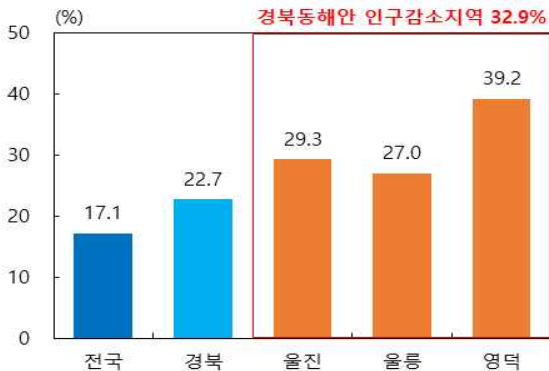
1992~2021년중 인구 증감율(연평균)



자료 :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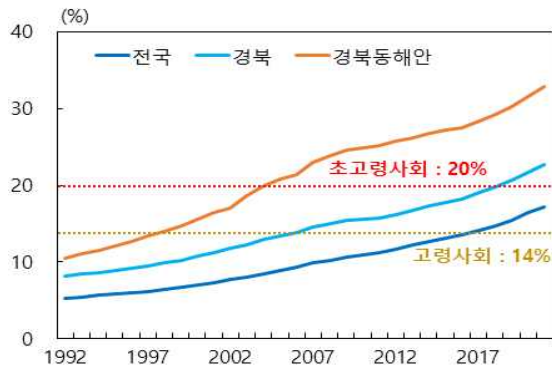
-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은 2005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여타 지역에 비해 빠르며 2021년 기준 65세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32.9%에 이릅니다

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¹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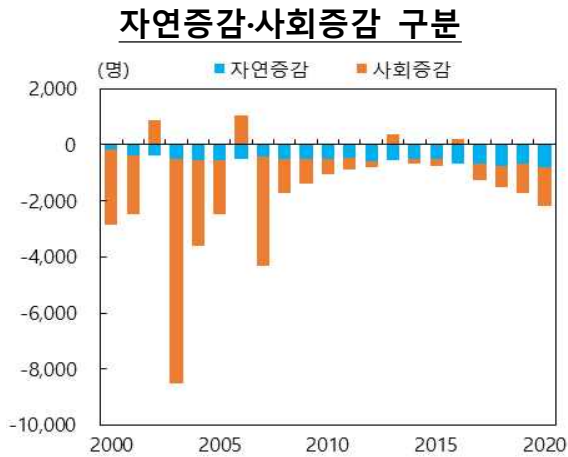
주 : 1) 2021년 기준
자료 :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

65세이상 인구 비중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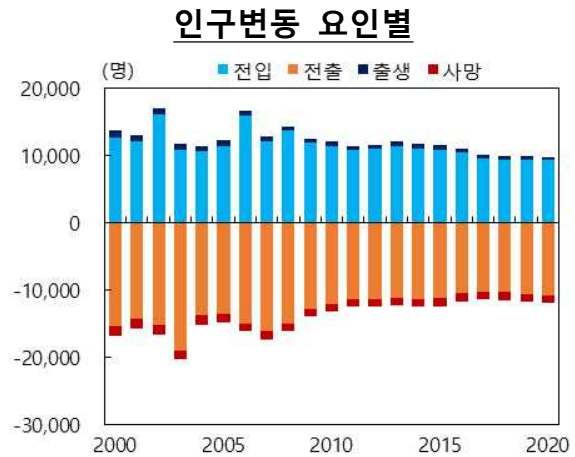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

-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의 인구변동을 자연증감(출생, 사망)과 사회증감(전입, 전출)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자연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타 지역으로 인구 순유출이 2017년부터 뚜렷해진 모습
- 2000년 이후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의 인구변동은 사회증감에 의한 변동이 대체로 더 크게 작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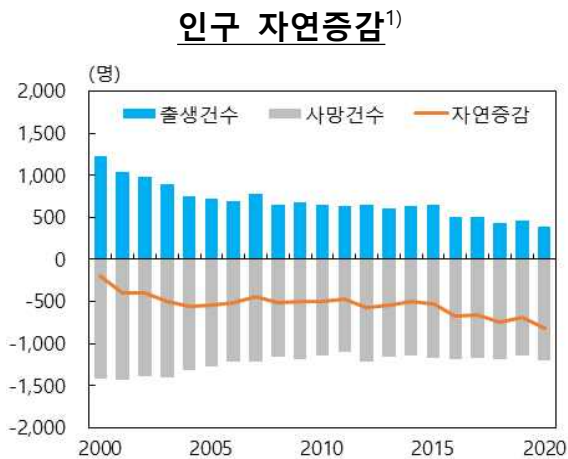
자료 :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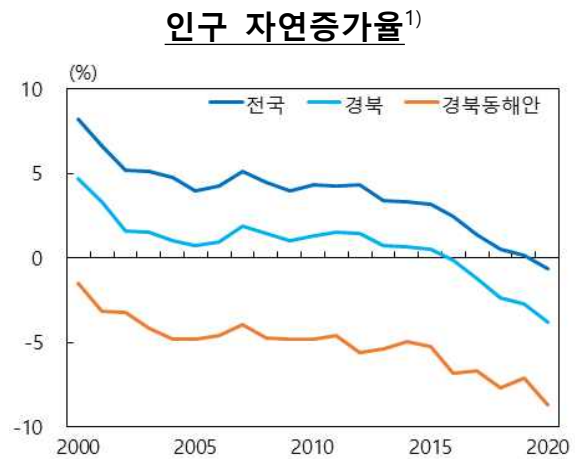
자료 :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

(자연증감)

-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은 출생건수가 사망건수를 밑돌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지속



주 : 1) 1년간 출생건수 - 사망건수
자료 : 통계청 인구동향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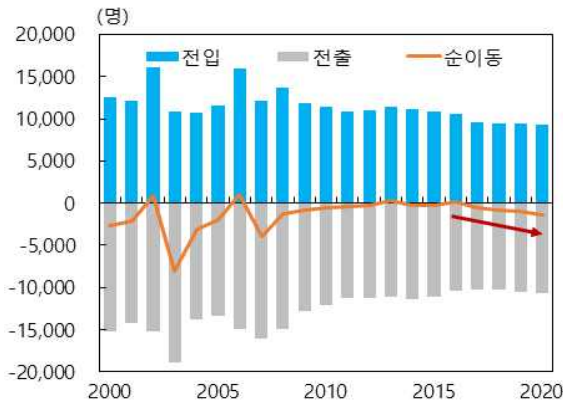


주 : 1) 1년간 자연증감 / 인구 천명
자료 : 통계청 인구동향조사

(사회증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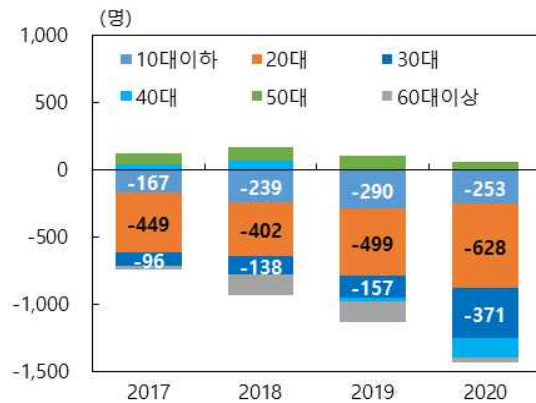
-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은 대체로 순유출이 지속되어 왔으며 2017년 이후에는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
- 연령별로는 50대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~30대가 대부분을 차지

인구 순이동¹⁾



주 : 1) 순이동 = 전입 - 전출
 자료 :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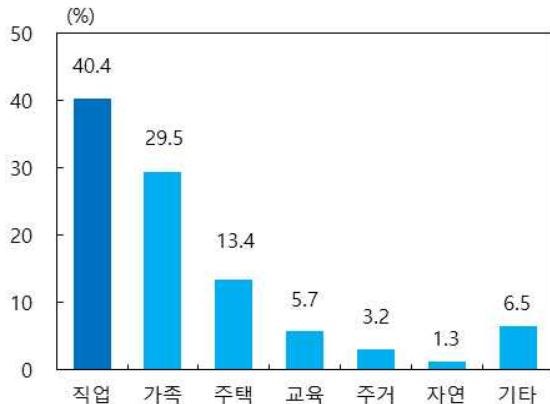
연령별 인구 순이동



자료 :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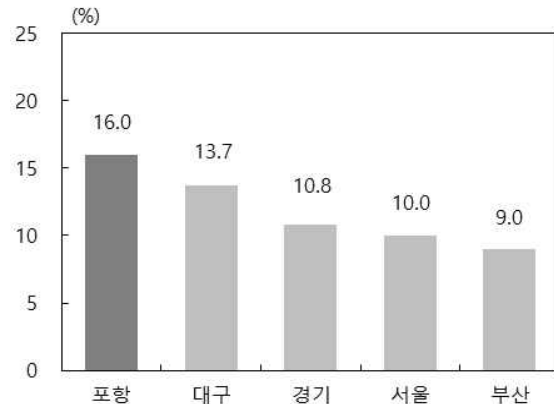
- 지역민이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이유로는 직업(취업, 사업, 직장 이전 등)이 40.4%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 가족, 주택 등의 순
- 이동대상 지역은 경북 포항시, 대구시, 경기도, 서울시 등의 순

전출 사유¹⁾
(2020년 기준)



주 : 1) 울진, 울릉, 영덕 이외 지역으로 전출
 자료 :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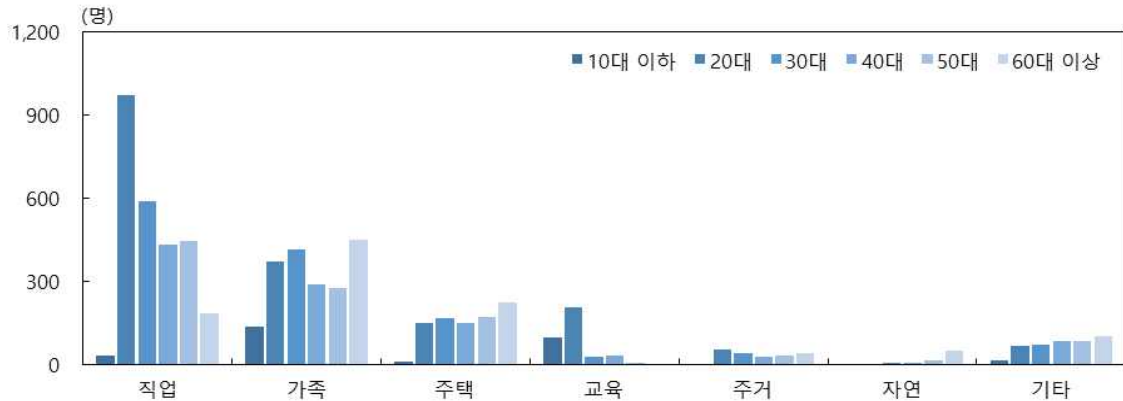
주요 전출지역¹⁾
(2020년 기준)



주 : 1) 울진, 울릉, 영덕 이외 지역으로 전출
 자료 :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

- 전출 사유별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직업(취업, 사업, 직장 이전 등) 목적의 전출은 2~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가족(가족과 함께 거주, 결혼, 분가 등) 및 주택(주택구입, 재개발 등) 목적의 전출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아지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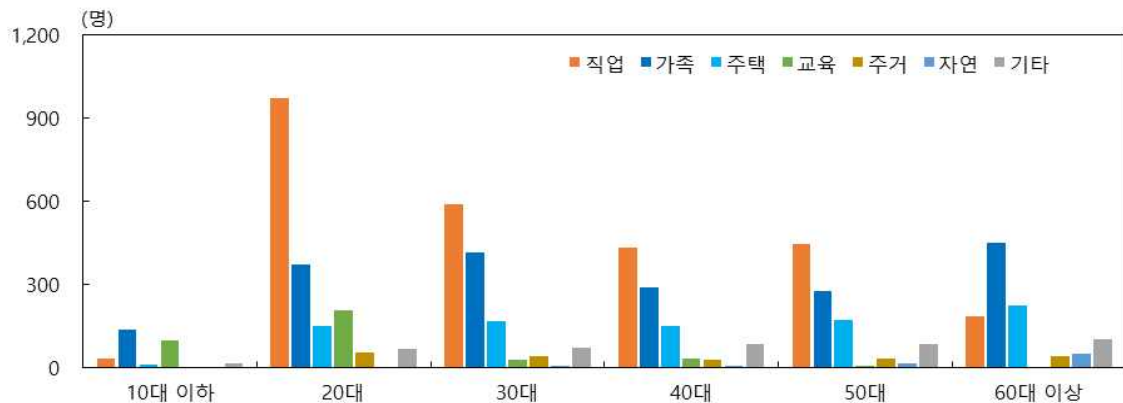
사유에 따른 연령별 전출자수¹⁾
(2020년 기준)



주 : 1) 울진, 울릉, 영덕 이외 지역으로 전출
자료 :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

- 연령별 주요 전출 사유를 분석해보면 주요 노동 공급계층인 20~50대에서는 직업 목적의 전출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, 은퇴 시기인 60대 이상에서는 가족, 주택 목적이 직업 목적의 전출자 수를 상회

연령에 따른 사유별 전출자수¹⁾
(2020년 기준)



주 : 1) 울진, 울릉, 영덕 이외 지역으로 전출
자료 :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

Ⅲ.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 인구감소 배경

1 산업구조 - 공공부문 편중,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미흡

□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의 산업구조는 전기·가스, 행정 등 정부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는 공공부문에 편중되어 있음

○ 2018년 기준 지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.5%로 경북(46.5%) 및 전국(29.1%)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편

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 산업구조 비교¹⁾

	전국	경북	3개 군	울진	울릉	영덕
농림어업	1.9	5.4	7.9	5.1	6.1	17.0
광업	0.1	0.1	0.6	0.5	0.0	1.0
제조업	29.1	46.5	2.5	1.7	4.3	4.3
전기·가스·증기 ²⁾	2.0	2.3	25.0	36.8	0.3	0.6
건설업	5.9	5.7	16.5	17.0	20.4	13.5
공공행정 ³⁾	6.6	8.1	15.5	9.5	35.2	25.0
서비스업	60.9	31.9	31.9	29.4	33.8	38.6
계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

주 : 1) 2018년 명목GRDP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

2) 전기·가스·증기·공기조절업

3) 공공행정·국방·사회보장행정

자료 : 통계청 시군구GRDP

○ 울진군의 경우 원자력 발전이 포함되는 전기·가스 부문 비중이 36.8%로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구조이며, 타 원전 소재지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

원자력 발전소 소재지역의 제조업 생산 비중¹⁾

	울진(한울)	영광(한빛)	경주(월성)	울주(새울)	기장(고리)
농림어업	5.1	8.6	3.4	0.7	0.6
광업	0.5	0.3	0.1	0.6	0.0
제조업	1.7	5.4	42.7	67.0	26.7
전기·가스·증기 ²⁾	36.8	40.9	6.9	1.6	18.2
건설업	17.0	7.7	6.3	7.6	11.9
공공행정 ³⁾	9.5	9.8	5.0	1.6	3.9
서비스업	29.4	27.5	35.7	20.9	38.7
계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

주 : 1) 2018년 명목GRDP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 2) 전기·가스·증기·공기조절업

3) 공공행정·국방·사회보장행정

자료 : 통계청 시군구GRDP

-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의 산업별 일자리(종사자수 기준) 수를 경북 및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제조업 등 민간부문의 비중이 낮고 전기·가스, 행정 등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

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 산업별 종사자수 비중¹⁾

	전국	경북	3개 군	3개 군		
				울진	울릉	영덕
농림어업	0.2	0.4	0.6	0.6	0.7	0.2
제조업	18.1	27.8	7.2	9.3	5.8	7.6
전기·가스·증기 ²⁾	0.3	0.6	6.3	0.5	11.4	0.9
건설업	6.6	6.6	12.0	9.8	13.6	11.5
공공행정 ³⁾	3.4	4.5	10.4	9.3	10.4	14.1
서비스업	70.8	59.2	62.0	69.3	56.6	64.1
기타 ⁴⁾	0.6	0.9	1.4	1.2	1.6	1.6
계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

주 : 1) 2019년 산업중분류별 종사자수 기준 2) 전기·가스·증기·공기조절업

3) 공공행정·국방·사회보장행정

4) 광업, 수도, 하수 및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업

자료 :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, 경상북도사업체조사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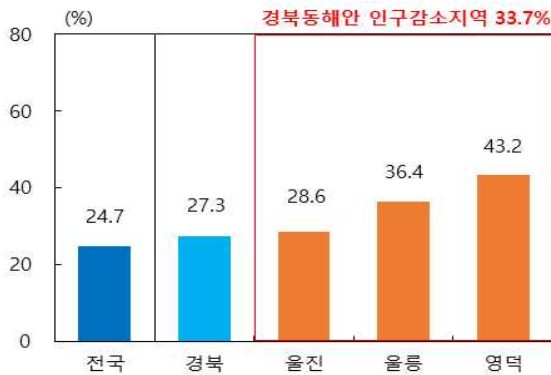
고용의 질 - 낮은 고용안정성, 저임금·단순노무 중심

□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은 임시·일용 등 고용안정성이 낮고 저임금, 단순노무 일자리가 많아 지역 경기상황에 따라 거주민의 사회이동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

- (종사상지위별) 2021년 상반기 기준 임시·일용 일자리와 비임금 일자리 비중은 각각 경북 및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
- (직업별) 단순노무 일자리가 관리자·전문가 일자리보다 많은 편
- (연령별) 고령층 일자리 비중이 27.5%로 높음
- (급여수준) 월평균 급여* 수준은 229.6만원으로 경북지역의 88.5%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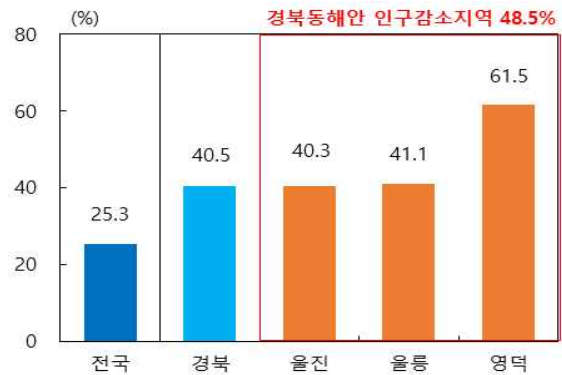
*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조사 당시 응답한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 기준
: 전국 283.1만원 / 경북 259.3만원 /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 229.6만원

임시·일용 일자리 비중¹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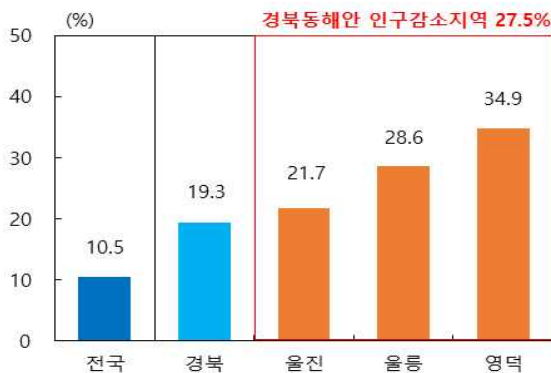
주 : 1) 임시·일용근로자/임금근로자
자료 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

비임금 일자리 비중¹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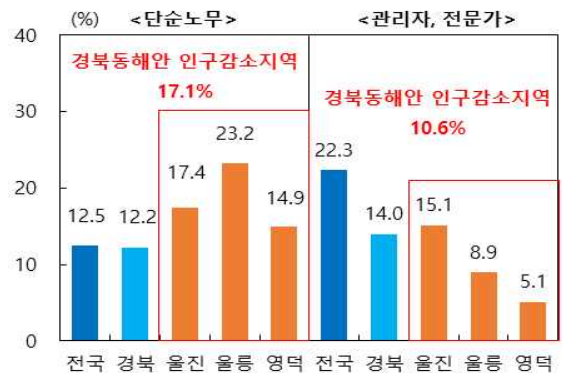
주 : 1) 비임금근로자/취업자
자료 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

고령층(65세이상) 일자리 비중



자료 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

직업별 일자리 비중



자료 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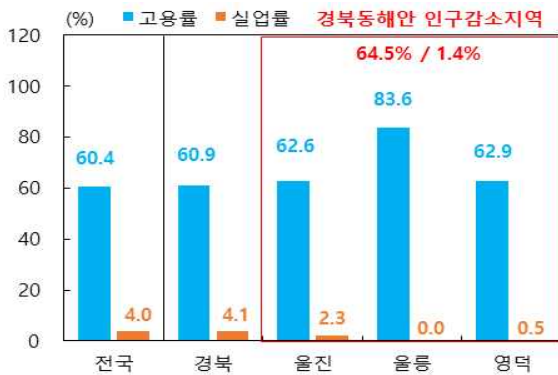
<참고 2>

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 고용지표 분해

□ 최근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은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인데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착시효과로 분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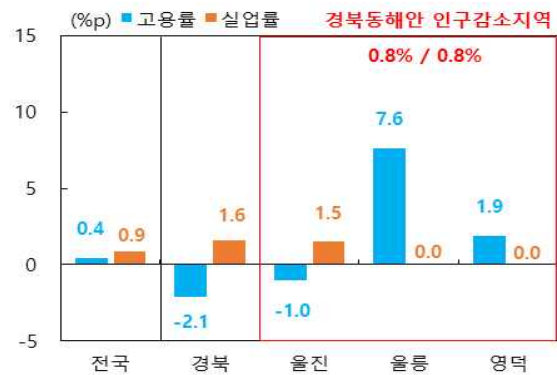
- 2021년 상반기 기준 고용률은 64.5%로 전국 및 경북에 비해 높고 실업률은 1.4%로 낮음
- 또한 통계가 최초 생산된 2013년 상반기와 비교시 전국 및 경북에 비해 고용률의 증가폭은 높고 실업률의 증가폭은 낮은 모습

주요 고용지표
(2021년 상반기 기준)



자료 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

주요 고용지표 변화
(2013년 상반기 대비)



자료 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

고용률과 실업률 산출 방법

□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의 시군구별 통계자료를 기초로 아래의 방식에 따라 주요 고용지표를 산출

- 고용률 = 취업자(C) / 만 15세이상 인구(A)
- 실업률 = 실업자(D) / 경제활동인구(B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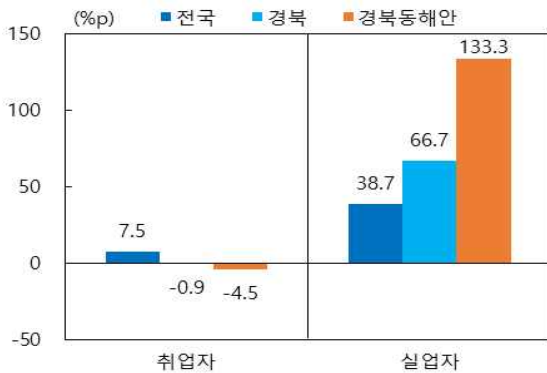
총 인구	만 15세 이상 인구(A)	경제활동인구(B)	취업자(C)
		비경제활동인구	실업자(D)
	만 15세 미만 인구		

○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의 고용지표 착시효과는 15세이상인구와 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취업자 감소, 실업자 증가의 영향을 상회하는데 주로 기인

— 구체적으로 전국 고용률의 경우 취업자 증가(분자, +요인)가 4.2%p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15세이상인구 증가(분모, -요인)가 3.8%p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여 0.4%p 증가에 그쳤지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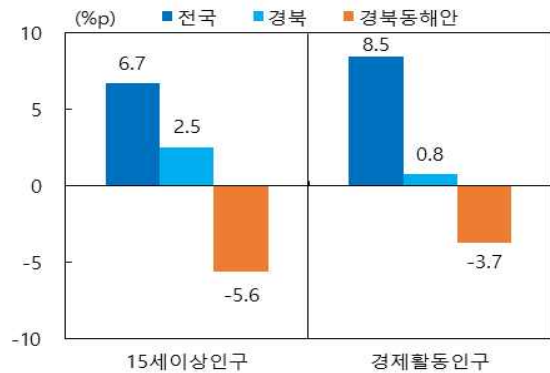
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의 고용률은 취업자 감소(분자, -요인)가 3.0%p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15세이상인구 감소(분모, +요인)가 3.8%p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0.8%p 증가

취업자, 실업자 증감률¹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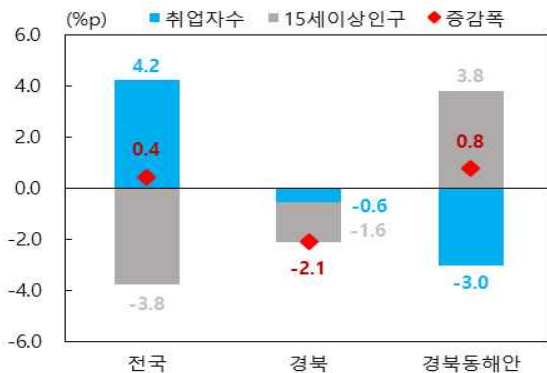
주 : 1) 13년 상반기 대비
자료 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

15세이상인구, 경제활동인구 증감률¹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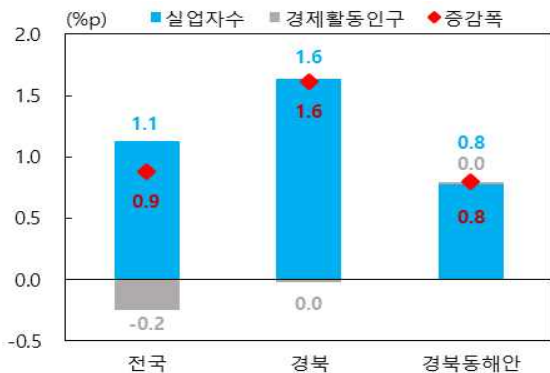
주 : 1) 13년 상반기 대비
자료 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

고용률 증감요인 분해¹⁾



주 : 1) 13년 상반기 대비
자료 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, 한국은행 추산

실업률 증감요인 분해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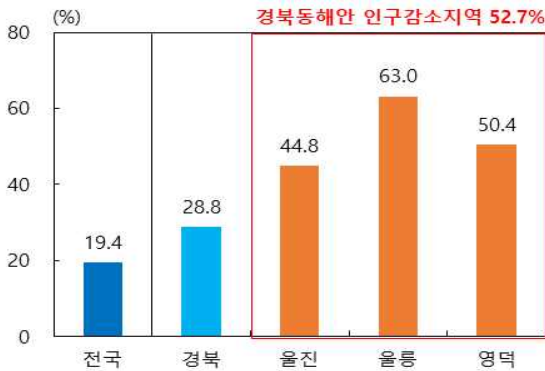


주 : 1) 13년 상반기 대비
자료 :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, 한국은행 추산

3 정주여건 - 낙후된 생활환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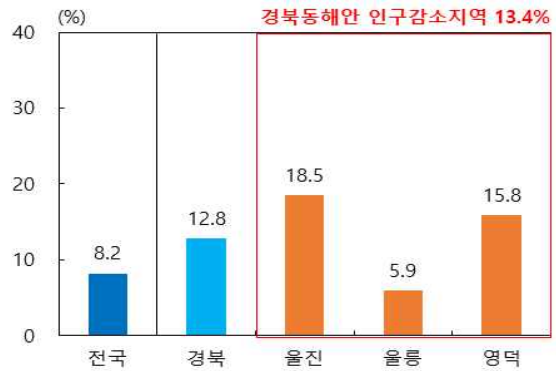
-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은 주거, 교통, 교육·문화 등의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타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요인으로 작용
- (주거) 주거환경은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아파트 보급률이 낮은 등 다소 취약한 편
 - 주거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노후주택과 빈집의 비율이 각각 52.7%, 13.4%로 전국 및 경북에 비해 높음

노후주택¹⁾ 비율
(2020년 기준)



주 : 1) 30년 이상 주택 수/전체 주택 수
자료 : 통계청 주택총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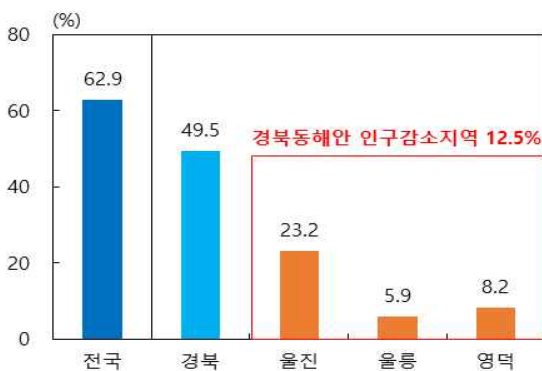
빈집¹⁾ 비율
(2020년 기준)



주 : 1) 빈 집 /전체 주택 수
자료 : 통계청 주택총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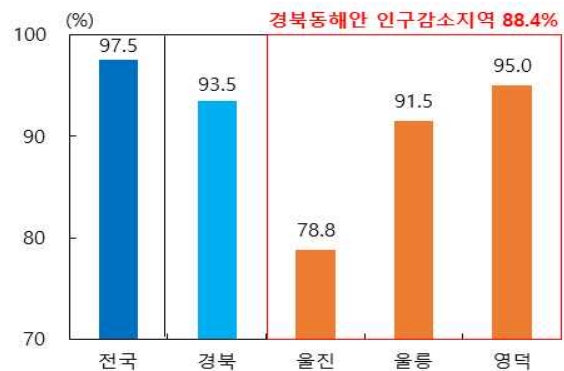
-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양호한 아파트 보급비율 역시 12.5%로 낮은 수준이며 상수도 보급률 역시 88.4%로 낮음

아파트¹⁾ 비율
(2020년 기준)



주 : 1) 아파트 호수/전체 주택 수
자료 : 통계청 주택총조사

상수도¹⁾ 보급률
(2020년 기준)



주 : 1) 상수도 급수 인구 /총 인구
자료 : 환경부 상수도통계

□ (교통) 광역경제권 핵심지 및 여타 지역들과의 연결기능이 취약

○ 가장 인접한 고속도로IC까지의 이동거리는 평균 44.5km, 고속·고속화철도역까지 이동거리는 평균 90.4km로 상당히 열악한 수준

— 선박을 이용해야만 하는 울릉군*을 포함하면 교통 접근성은 더욱 낮아짐

* 육지까지의 거리 : 포항 217km, 강릉항 178km, 묵호항 161km, 후포항 159k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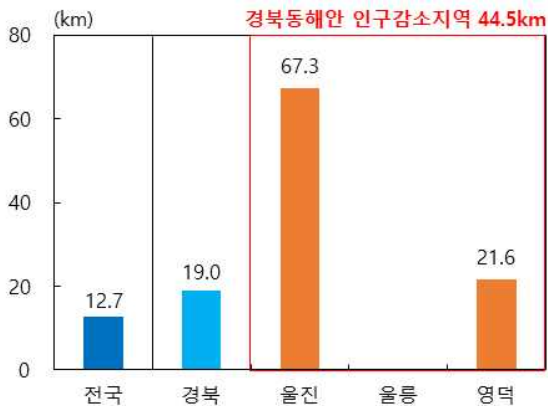
○ 다만 도로포장율은*은 지속적인 도로투자에 힘입어 양호한 편

* 포장도로/전체 개통도로(% , 2020년 기준)

: 전국 94.1 / 경북 89.0 / 울진 84.4 / 울릉 100.0 / 영덕 85.9

고속도로IC 접근성¹⁾

(2020년 기준)



주 : 1)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IC까지 도로 이동거리

자료 :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

고속·고속화철도 접근성¹⁾

(2020년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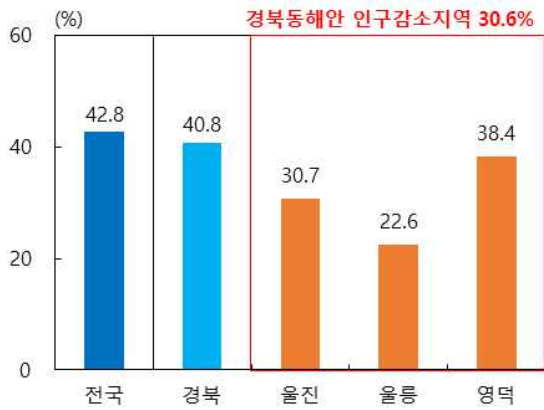
주 : 1) 가장 가까운 고속·고속화철도까지 도로 이동거리

자료 :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

□ (교육·문화) 교육 및 문화시설까지의 접근성이 열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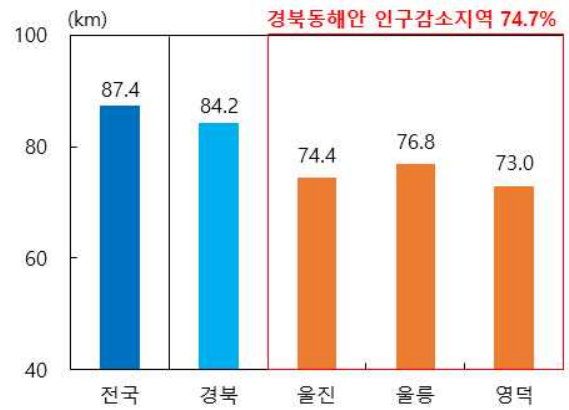
- 초등학교 인근(750m)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인가 비율이 30.6%, 공연문화 시설 인근(20km)에 거주하는 인가 비율이 74.7%로 낮은 편

**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
인가인가 비율¹⁾**
(2020년 기준)



주 : 1) 초등학교 인가(750m) 거주 초등학교 인가 인가수/총 초등학교 인가 인가수
자료 :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

**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내
인가인가 비율¹⁾**
(2020년 기준)



주 : 1) 공연문화시설 인가(20km) 인가수 / 총 인가수
자료 :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

IV. 시사점

1 | 종합평가

-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제조업 기반이 발달하지 못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주거·교통 등을 포함한 생활 인프라도 열악하기 때문
 - (산업구조) 제조업 기반이 미약하고 전기·가스, 행정 등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부족
 - (고용의 질) 낮은 급여수준, 단순노무 중심의 일자리, 높은 임시·일용직 근로자 비중 등 고용의 질적 수준이 낮음
 - (정주여건)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교통 접근성도 낮은데다 교육, 문화 시설 등의 보급도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환경
 -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이 취약한 점도 재정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, 사회기반 시설 투자 등 경기 완충 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
 - 경북 울진·울릉·영덕군의 최근 5개년(2016~2020년중) 연평균 재정자립도*는 10.2%로 전국(42.5%) 및 경북(23.6%)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편
 - * '자체수입(지방세+세외수입)/총 예산'으로 계산되며 지방재정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
- ⇒ 지역의 경제상황에 맞추어 단기적으로는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구의 자연증가를 견인할 수 있는 과감하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

2 대응방안

-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전략은 ①지역 특색을 살린 산업기반 확충 ②정주여건 개선 및 사회기반시설 정비이며 아래의 세부과제를 추진해나갈 필요

(지역 특색을 살린 산업기반 확충)

- ① 원자력발전, 풍력발전, 그린수소, 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 등 新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강화

-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부문*의 원료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울진·영덕군의 원자력, 풍력 발전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新에너지산업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할 기회

* 2018년 국내 분야별 탄소 배출 비중(%) : 발전 37.1, 산업 35.8, 수송 13.5

— 울진군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및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영덕군에서는 해상 풍력발전단지 설립 등을 추진 중

- 중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해저저장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*되는 울릉분지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추가적인 탄소배출 감축방안을 확보

* '한국 CO2 저장소 유망구조 및 저장용량 종합평가 심포지엄', 2021.11.3

- ② 풍부한 청정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 및 힐링관광 인프라 구축

- 총 567.7km에 이르는 해안선, 울릉도·독도 등 다양한 해양 관광자원 외에 온천(백암온천 등)과 산림 관광자원(금강송 에코리움 등)도 풍부하여 온천·숲·해양을 융합한 힐링 관광지*로서 장점이 존재

* 한국관광공사의 2021년 여행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행시 주요활동으로 '자연경관 감상'이 59.5%로 가장 높았고, 2022년 국내여행 선호 테마로는 '힐링여행'이 65.5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힐링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

— 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 육성지역 중심지('웰니스관광 협력지구')로 경북 울진, 영덕, 영주, 영양, 봉화군을 지정(22.3월)한 바 있음

- 해양레저 및 힐링관광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기술 및 자격증 (요트 설계, 선박건조기술사, 동력기계정비기능사 등)에 대한 교육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

③ 자동화, 선진화를 통한 어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

- 어업 종사자 감소* 및 고령화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양식업 비중**이 낮아 생산 및 소득의 안정성이 낮은 상황

* 13.상반기 → 21.상반기 농림어업 취업자수 -16.3% / 전체 취업자수 -4.5%

** 2021년 생산량 기준(%) : 전북 62.5, 전남 91.1, 경북 6.1, 경남 64.7, 제주 26.3

- 수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 전 과정을 자동화, 선진화하여 스마트 양식장, 스마트 위판장, 선상 온라인경매시스템 등을 도입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

— 해양수산부는 19년 ‘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’을 발표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포항시에서는 이에 따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와 스마트 수산기자재 생산단지를 조성할 예정

④ 귀농·어·촌 지원 및 장려

- 최근 전국적으로 귀농·어·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북 귀농·어·촌인수*는 2014~2020년 중 연평균 1.77% 증가

- 정착 초기에는 농·어업 경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마련에 높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*하므로 주거 및 기반시설의 임대를 통한 제공을 고려

* 귀농 실태조사(2020)에 따르면 귀농 시 평균정착자금은 17,725만원으로 대부분 (66.8%) 주택마련과 농지구입에 사용되며 주택 마련 시 어려움으로는 ‘예상보다 비싼 가격(37.4%)’, ‘매물 정보부족(22.0%)’ 순으로 응답

- 정착 후기에는 자금 지원 확대, 지원요건 완화, 홍보 강화*를 추진하고 농·어촌 내 유희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·창업공간을 공급

* 귀농 정책의 문제점으로 ‘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움(35.5%)’, ‘지원자격과 절차가 까다로움(28.1%)’ 순으로 응답

(정주여건 개선 및 사회기반시설 정비)

① 도로, 철도, 항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접근성을 제고

- 경북 내륙으로 이어지는 동서축 노선과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남북축 노선 모두 부족한 만큼 주요 교통축과의 단절이 존재하여 교통망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

경북 고속도로 노선도



자료 : 한국도로공사

경북 철도 노선도



자료 : 한국철도공사

- (고속도로)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계획 노선에 포함된 동서 5축(문경-울진)과 남북 10축(포항-삼척) 고속도로의 건설을 추진할 필요
- (철도)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된 중부권 동서횡단선(서산~울진) 사업을 추진할 필요
 - 포항-영덕-삼척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는 2023년 개통 예정
- 또한 2025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공사가 완료되면 관광수요에 비해 제약된 이동수단으로 부진했던 울릉군 관광 활성화가 촉진될 예정
 - 울릉크루즈 취항 이후(21.9월~22.1월) 울릉도 입도 관광객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175.3%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항공편이 추가될 경우 울릉군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

② 교육, 문화, 보건, 복지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구축

- 일상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도서관, 돌봄센터, 국민체육센터,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 시설의 구축을 확대
- 이를 통해 교육, 문화, 보건, 복지 소외지역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필요

③ 도시재생 및 뉴딜사업 적극 추진

-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 등의 개선을 지원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쇠락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
 - 울진군에서는 후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, 울진항 어촌뉴딜 300사업 등이 진행 중

<참고 3>

「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」 3대전략과 핵심과제

3대 전략	핵심 과제
<p>(사람)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</p>	<p>지역인재-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</p>
	<p>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토대 마련</p>
	<p>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, 관광</p>
<p>지역 어디서나 차별없이 누리는 문화관광, 지역을 살리는 문화관광 구현</p>	
<p>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, 복지체계 구축</p>	
<p>전국 어디서든 행복한 삶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지역 보건, 복지체계 구축</p>	
<p>(공간)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</p>	<p>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</p>
	<p>자립적 성장기반 마련과 활력제고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만들기</p>
	<p>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</p>
<p>지역맞춤형 도시재생 뉴딜로 지방 중소도시의 재도약 도모</p>	
<p>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</p>	
<p>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위기에 선제 대응</p>	
<p>(산업)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</p>	<p>혁신도시 시즌2</p>
	<p>특화발전 지원, 정주환경 개선, 상생발전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신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</p>
	<p>지역산업 혁신</p>
<p>지역 주도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산업-일자리-인재 선순환 구축</p>	
<p>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</p>	
<p>지역 유휴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</p>	

자료 : 국가균형발전위원회

<참고자료 및 문헌>

- 국가균형발전위원회·산업통상자원부, “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(안)”, 2019.1
-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, “2020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”, 2021.8
- 권태범, “대구경북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교통망 구상”, 대구경북연구원, 2021.11
- 김세나, “경북 수산업, 스마트화로 생존과 미래 도약을 준비하라!”, 대구경북연구원, 2021.10
- 문화체육관광부, “2022년 치유관광 육성 지역 중심지로 경상북도 지정”, 보도자료, 2022.3.11
- 박상훈·박동민·이준영, “강원도 재정여건 점검 및 정책과제”, 한국은행 강원·강릉본부, 2022.1
- 박성경, “경기도 지역불균형 점검과 시사점”, 한국은행 경기본부, 2021.5
- 박재성·채희준, “강원 영동지역 고용 동향 및 주요 특징”, 한국은행 강릉본부, 2018.12
- 산업통상자원부·해양수산부, “합동 연구단,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(CCS) 유망 저장소 7.3억 톤으로 평가”, 보도자료, 2021.11.3
- 윤승완, “강원 영동지역의 인구 현황 및 시사점”, 한국은행 강릉본부, 2018.6
- 이석희, “대구경부공항신공항 연계 동해안권 발전방안”, 대구경북연구원, 2021.8
- 이형구·배한이, “대구경북지역의 인구감소·지방소멸위험 분석 및 시사점”,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, 2022.2
- 장경철, “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동향과 시사점”, 한국은행 포항본부, 2021.4
- 진상현, “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·사회·환경적 영향 분석”,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 15권 제1호, 2021.5, pp.3-32
- 최신, “탄소중립과 국내 철강업의 대응 과제”, 한국은행 포항본부, 2021.11
- 최지욱, “포항지역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”, 한국은행 포항본부, 2021.12
- 한국관광공사, “2022년 관광트렌드 전망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조사 보고서”, 2021.12
- 한국관광공사, “빅데이터를 활용한 2022년 관광트렌드 분석”, 2021.12
- 해양수산부, “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끌 해양수산 스마트화 본격 시동”, 보도자료, 2019.11.11
- 행정안전부, “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,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!”, 보도자료, 2021.10.18

주요 참고 홈페이지

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, <http://nabis.go.kr/>

국립해양조사원, <http://khoa.go.kr/>

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, <http://mdis.kostat.go.kr/>

영덕군청, <http://yd.go.kr/>

울릉군청, <http://ulleung.go.kr/>

울진군청, <http://uljin.go.kr/>

통계청 국가통계포털, <http://kosis.kr/>

한국관광 데이터랩, <http://datalab.visitkorea.or.kr/>

한국도로공사, <http://ex.co.kr/>

한국철도공사, <http://info.korail.com/>